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인생의 빈 들에서

그 곳은 빈 들이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누엿누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들에는 무려 2만 명이 넘는 굶주린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3일 동안 먹은 것이 변변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린 것은 고작 작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 떡 다섯 개뿐이었습니다.
 어느 소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점심 도시락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는 굶주린 2만 명 앞에는 오히려 더욱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해 줄 뿐이었습니다.
 제자들과 굶주린 군중들에게는 염려와 불평이 쌓여 가고 있을 때,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 소년의 도시락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만 12 광주리에 넘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빈 들에 계십니까? 인생의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막막한 굶주림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배웁시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응답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노철 목사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예배 시 - 성찬식 거행 / 찬양예배 시 - 추수감사절 감사찬양 다음 주일은 교회설립23주년 기념주일 / 향존직 임직식 거행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다. 우리교회는 『2014 새해에 바뀌는 것들』(순례자 2013년 12월 8일자)에 이미 공지된 바에 따라 지금까지 11월 넷째 주일에 지켰던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 감사주일을 2014년부터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과 성찬식을, 11월 넷째 주일에 교회설립 감사주일과 임직식을 나누어 지키게 된다.

따라서 오늘 I, II, III부 주일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한다. 또한 추수감사헌금을 봉헌한다. 찬양예배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절기 찬양이 있다.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한다.

다음주일은 교회설립23주년 기념주일, 향존직 임직식이 거행되며,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기 바란다.

2014 사명자 대회 - 특별새벽기도회

11월 17일(월)~22일(토) / 강사: 박노철 담임목사 자율기도: 연인원 5,421명 참석 / 릴레이 성경읽기: 23독 진행중

2014 사명자 대회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가고 있다. 11월 5일(수) 기준으로 24시간 자율기도 참석 연인원은 5,421명이며 성경 읽기는 27,105장 23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온 교회는 11월 17일(월)부터 22일(토)까지 새벽 5시에 박노철 담임목사를 강사로 『복 있는 자의 삶』(마 5: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이라는

주제로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인다.

11월 22일 마지막 토요일은 온가족 특별새벽기도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중인 11월 21일 금요기도회는 개인기도로 대신한다.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다음세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새벽기도회 후 직장으로 바로 가실 분들은 8층 만나홀에서 간단한 조식을 할 수 있다.



제 8회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 열린다

오늘 오후 3시, 웨스트민스터홀



우리교회 사랑부(지도: 박영준 목사, 부장: 강성은 집사)는 제 8회 『천사들의 음악회』를 11월 16일(주일) 오후 3시 101호에서 갖는다.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위해, 악기 연주와 찬양을 드리며 전도의 장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성도님들께서 나눔의 집에 보내주신 따뜻한 정성,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눔의 집은 서울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어 수요일이면 인근에 사시는 많은 이웃들이 찾아오시므로 전도의 장으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익금을 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구제 사업도 마음껏 했음을 성도님들께 보고드리며 마침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8층에서 떡을 대접합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2권사회 일동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54)

(문 154) 스가라는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스가라1:1,7)했는데 이는 마23:35과 마찰되지 않습니까?

(답) 마23:35에서 예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라서1:1,7에 기록된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라를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느헤미야12:12-21에 의하면 제사장 가문에서 그의 아버지 베레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잇도 족속에는 스가라요'라고 했고 에스라5:1, 6:14에서도 잇도의 후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베레가를 바라가로 그리고 스가라를 사가라로 말씀하신 것은 히브리 음을 헬라 음으로 읽을 때 생긴 변형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23장에서 언급하신 사람이 역대하24:20-22에 나온 사건을 말씀한 것이라면 소선지서 중에 나오는 스가라 선지자와 혼동을 하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24:20-22은 야호야다의 아들 스가라가 성전 뜰에서 주전800년경에 돌로 쳐 죽임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말씀한 스가라는 베레가의 아들 스가라였습니다. 베레가의 아들 스가라도 성전과 제단사이에서 야호야다의 아들 스가라처럼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다가 희생제물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스가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27명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27명 중 같은 방법으로 죽은 이가 두 사람 있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소선지서의 스가라가 살던 기간 동안 성경이나 어느 역사서도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기지 않고 있어 잘 알 수는 없으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라는 마태복음과 마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태복음이 스가라를 주석해 주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추수감사절 감사찬양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문환 장로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와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 입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여도 어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찬양할 수가 있으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을 어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작은 입으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어찌 다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할렐루야 찬양

대원이 힘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풍성한 오곡백과를 올해에도 허락해 주심을 우리들의 입을 크게 벌려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2014년 추수 감사절 감사의 찬양을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하여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간, 온 성도들과 함께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오셔서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비전2020운동

23사단 진중세례를 마치고



이갑진 장로 (비전2020운동본부 부장)

지난 11월 8일 아침 7시 반, 비전 2020 본부 일행 29명은 자매부대인 육군 23사단 등대교회의 진중세례를 위해 강원도 삼척으로 향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2여 년 동안 몸담아 왔던 진중세례의 마지막 공식행사이기도 하여 감

개가 무량하였습니다. 군에서 퇴역 후 비전 2020운동 실천 교회인 서울교회에 몸 담아,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랑에 힘입어 참으로 행복한 군 선교 사역을 감당 할 수 있었습니다.

군중 목사께서는 약 200여 명의 사단 신병교육대 인원 중 106명의 훈련병이 교회에 왔다고 했습니다. 신병 훈련기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렇게

급조로 세례받고 나간 친구 중에도 훌륭한 믿음의 집사, 장로들이 나오고, 목회자가 된 분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비전 2020운동이 시작된 이래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매년 16만~18만 명의 병사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고, 서울교회는 비전2020운동을 선도하는 교회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기준이나 판단으로 결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바로 군 선교 사역의 현장입니다.

젊은이들의 기독교인 신자비율이 4%를 밑도는 현실에서, 군대 내의 기독교 신자는 30%에 육박하고 있으니 민족복음화의 마지막 부름이 바로 군 선교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민간교회가 군부대에 들어가 세례를 주고, 군인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특권을 게을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복음전파의 명령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추수할 곳이 많은 군 선교의 현장에서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부름에 귀를 기울일때 전도와 선교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저 또한 곧 은퇴하지만 복음전파 사역의 현장에서 영원한 현역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

서울교회의 잔치가 되기를...



오길탁 집사 (사랑부 교사)

요한 복음(9 : 2) 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1호에서 사

랑부 지체들이 음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연습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인천 장애인 올림픽이 열렸을때 "불가능의 벽을 넘어"란 구호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사랑부만의 잔치가 아닌 서울교회 모두의 관심어린 잔치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인천 장애인 올림픽 게임장의 스탠드가 텅 비인걸 보았습니다. 이를 보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며 우리 교회만이라도 사랑부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들이 한번쯤 어떠한 사람들인지,

들여다 보시고 격려박수를 주십시오.

벌써 8회가 되었습니다. 사랑부 지체들이 편견의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떳떳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는 모습을 지켜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부 지체들이 소외 되지않고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만드는데, 양지에서 자란 식물과 같이 튼튼한 모습이 되어가도록 사랑을 보내주는데 손잡고 함께 나아가봅시다. 그동안 주신 많은 사랑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지키는 사람들



전숙향 권사 (12교구)

23년전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서울교회가 이제 는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먼저 믿은 자의 비밀의 복과 은혜를 담장 밖으로 흘려보내라"는 담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50일간의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기도의 불로 밝혀야겠다는 감동으로 밀려 왔습니다. 하나님께선 너무나 감사하게도 겨자 씨보다 작은 이 믿음을 귀히 보시어 그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한 그 기도의 자리에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까닭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듯이 기도하는 성도 까닭에 서울교회가 부흥하고, 목사님 까닭에 은혜와 복을 받는 모든 성도되길 바라는 갈급함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선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세계각처에 파송 받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특별히 영혼 구원의 열망과 마음에 품었던 수많은 'VIP' 이름들을 불러 기도하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연합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두분의 권사님을 기도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으니 든든한 삼겹줄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0시에서 4시까지 모두가 잠든 고요하고 적막한 새벽의 첫 시간 웨민회를 밝히는 기도의 촛불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새벽3시면 어김없이 오시는 살롬 권사님을 뵈 때 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의 향기로 묻어나와 코끝이 시큰해짐을 종종 느낍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미처 구하지 못한 것 까지도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합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 합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할렐루야찬양대(대장 : 노문환 장로)의 추수감사절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고성진 집사의 지휘로 "감사의 노래", "오 얼마나 아름다운가(Joseph M.Martin곡)", "현신의 노래(Don Besig)" 등 합창 여섯곡과 시 낭송, 그리고 독창(고성진 집사), 중창 등, 총 여덟곡의 찬양을 드린다. 오르가니스트 김현정 집사, 피아니스트 김양언 집사,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가 함께 연주하며 나레이션에 홍만유 집사, 솔리스트 김가람, 이영인, 유동현, 임무근, 김재준 대원이 중창을 하며 플루트에 이미현 성도, 트럼펫에 김승연 성도가 찬양대와 함께 연주한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1월18일(화) 군선교신학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11월22일(토) 한국장로교신학회에 참여한다.
- 공연: 김양언 집사(11교구) 피아노 듀오콘서트 "동무" 11월 18일(화) 오후 8시, 세리익 팔레스홀
- 주일식당봉사: 엘리안교회 뱌뵐전도회(11.16) 모세선교회 루디아전도회(11.23)
- 금주의 식사 제공: 강낙훈 집사 심상희 권사 가정 백승갑 집사 박길자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 떡제공: 제2권사회

살롬경로대학 - 야외예배를 다녀와서

이 가을에

정애신 권사(11교구)

살롬 경로회원들 아가페다운에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호명호수 가는 산행 길 가을의 옷자락 푸른잎은 고운옷 같아 입고서 바람에 날려 땅위에서 뒹구네 다가올 겨울맛이 자연의 모습

은빛머리 날리며 산등성 오르니 인생의 가을 맞은 우리에게도 하늘나라 가는 길 준비하라는 말없이 보여주는 신호 아닐까 색다른 형태로 시간을 재촉한다

하늘엔 회색구름 내려 깔리고 벌거벗은 나무들 추위에 떨면서 산자락에 낙엽들 서로 끌어안고 흙으로 돌아가는 소리 쿵쿵 시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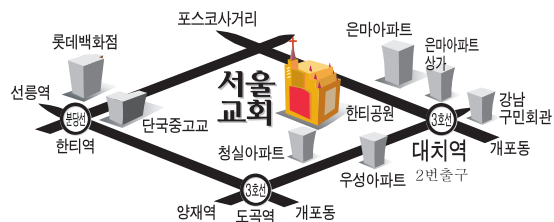
호명호수 푸른 물 하늘바라 보면서 먼뎃손님 기러기떼 기다리는데 불청객이 먼저 와서 미안하구나 차가운 겨울바람 잘 버티고 돌아오는 새봄에 다시 만나자 잘 있거라 호수야 영원하리라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 층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2.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사명자 대회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복 있는 자의 삶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3. 오는 주일에 있는 교회서립감사와 임직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